

輸銀,국제개발금융기관 출연 자금 운용·관리

[머니투데이 2005-12-19 11:43]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한국수출입은행과 재정경제부는 19일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에 출연한 신탁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수출입은행에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탁기금이란 국제개발금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등을 위해 회원국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우리 정부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5대 국제개발금융기관에 총 1억700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은 이 기금을 활용해 사업 초기단계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향후 본사업의 수주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시장규모가 연간 380억 달러(2004년 기준)에 이르지만 우리 기업의 참여율은 1%(수주금액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개발사업시장 진출 지원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수탁기관으로서 개도국의 개발차관사업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용자 등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신탁기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최적의 기관"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또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재경부 및 수출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개발사업 상담센터'의 현판식도 개최했다.

국제개발사업 상담센터는 국제개발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사업 참여절차 설명, ▲선진국의 수주전략 소개, ▲신탁기금 등을 활용한 국제개발사업 진출전략 안내, ▲구매정보 제공 등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출연한 신탁기금과 국제개발사업 상담센터를 활용한다면 연 1000억 달러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 개발사업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동 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장(왼쪽)과 신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이 19일 수출입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정부가 국제개발금융기관에 출연한 신탁기금 운용 및 관리를 수은에 위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진형기자 jhk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인쇄하기

닫기